

# U.V.E.C.(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문화재교육 정립을 위한 문화재교육 목표 연구

박상혜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shpark59@hanmail.net

## 국문초록

그동안 문화재교육은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재교육의 질적 성장은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 문화재교육은 목표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문화재교육은 그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지금의 문화재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문화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은 문화재교육 관련자들이 교육목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교육 목표가 교육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U.V.E.C. 문화재교육'이란 새로운 문화재교육을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하고, 문화재를 향유(Enjoy)하고, 문화재를 창조(Create)하는 교육이다.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변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총괄목표, 세부목표, 실천목표라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문화재교육 목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육으로서의 일반성과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동목표의 영역 다양성과 진술 명확성,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와 학습자 주도성과 개방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수자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자에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이제까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문화재교육의 목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이후에 U.V.E.C. 문화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재교육 전반이 변화될 것이며 문화재교육은 새로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U.V.E.C 문화재교육, 이해, 가치, 향유, 창조

투고일자 2022. 6. 29. | 심사일자 2022. 7. 22. | 게재확정일자 2022. 11. 3.





## I. 서론

그동안 문화재교육은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국가는 '문화재 애호의식과 민족정체성 확립 기여'라는 전통적 목표<sup>2</sup>와 '문화재를 콘텐츠로 활용한 사회·경제발전'이라는 실용적 목표<sup>3</sup> 달성을 위해 문화재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은 공교육을 보조하고 보충하기 위해서<sup>4</sup> 또 문화재를 체험하고,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서 문화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개인적 필요는 모두 문화재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재교육은 이 요구와 필요를 '문화재교육의 목표'란 형식으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요구와 개인적 필요를 문화재교육 목표에서 모두 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국가의 요구인 민족정체성 확립 기여와 콘텐츠로서 문화재 활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또 국가의 요구인 민족정체성 확립 기여와 개인의 필요성인 즐기는 문화재교육 사이의 간극은 더욱 넓다. 이러한 간극의 차이는 문화재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시대 흐름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

러한 간극의 차이를 줄이면서 유의미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문화재교육', '문화유산교육'이란 용어는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사용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해석되어 왔다.<sup>5</sup>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성격과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용어가 지향하는 목표까지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문화재교육이란 용어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한 이유는 이제까지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논의되거나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동안 문화재교육이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제각기 사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혼선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결국 문화재교육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본다. 그 다음, 찾아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새로 설정된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문화재교육의 정체성(正體性)을 좀 더 명확하게 확립시켜 주고 이후 문화재교육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2021년에 1,0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문화재교육 기관, 사업비, 학습자 연령층, 교수자 인원수, 연평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수 등 문화재교육실태조사를 조사하였다. 이 통계에서 문화재교육의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문화재청·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21,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pp.205~208).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

3 문화재청 발행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에서 '지금까지 문화재는 주로 교육적,문화적 차원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재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문화재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 p.9).

4 한국문화재단 연구에 의하면 '교과과정 및 교과서, 초·중·고등 과정 문화유산 공교육 현황, 체험학습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문화유산 관련 문항분석을 통한 교과 연계방안 모색, 한국문화사 교과서 발간 논의를 통해 본 문화유산 관련 교재 및 교안 개발 전략 제시'(한국문화재단, 2016, 『2016년 문화유산 공교육 활성화 방안』, p.29)라 하여 문화유산의 공교육 보조, 보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5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란 용어의 정의와 차이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와 이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일단 참고한 문헌은 원문대로, 그 외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문화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II.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

### 1. 문화재교육 목표 분석의 기초

#### 1) 교육목표와 문화재교육 목표

교육활동은 다양한 교육내용에,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다.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교육의 한 분야이다. 문화재교육은 교육의 일반성과 교육내용이 문화재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교육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교육목표(objectives of education)’는 의도적 교육 실체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교육성과를 말한다. 교육목표 수립은 학습자의 능력·필요·흥미를 기초로 하는 개인중심적 입장, 사회적 및 개조를 위한 사회중심적 입장, 사회의 요청과 개인의 필요를 절충하는 통합적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동안 교육목표 진술은 인간 행동 분류에 따른 행동적 특징을 교육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블룸(B.S. Bloom)이 주장한 ‘행동적 목표’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교육목표는 인지적·정의적·운동기능적 영역으로 분류된다.<sup>6</sup> 그리고 블룸은 이 중 인지적 영역을 단순성에서 복잡성의 수준에 따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여섯 유목으로 나누었다. 또 크래드 월(Krathwohl)은 정의적 영역을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5개 행동 유목으로 구분하였다.<sup>7</sup> 그러

나 타일러(R. Tyler)와 블룸의 ‘행동적 목표’는 수업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도외시한 점,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와 예술 교과의 차이를 묵살한다는 점, 학습 결과는 질적인 것도 있는데 양적인 것으로만 본다는 점 또 행동목표는 논리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심리적·경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sup>8</sup> 아이즈너(Eisner, E. W.)는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행동적 목표를 비판하면서 ‘문제해결목표(problem-solving objectives)’와 ‘표현 결과(expressive outcomes)’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제해결 목표는 목표에 문제가 제시되지만 학생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게 하는 개방적인 목표이다. 학생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주도성이 허용되는 목표이다. 표현 결과는 활동 이전에 설정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목표를 의미한다.<sup>9</sup>

그렇다면 문화재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행동적 목표와 문제해결목표, 표현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행동적 목표는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일반화된 교육목표라는 점과 교육 결과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문화재교육의 내용인 문화재는 역사성, 학술성 이외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sup>10</sup> 문화재교육 목표는 행동적 목표보다는 교육과정의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의 형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목표와 문제해결목표, 표현결과 모두를 문화재교육 목표 설정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p.107.

7 운동기능적 영역은 심슨(Simpson), 해로우(Harrow) 등이 분류체계를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도 그 타당성과 실용성 등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논평되고 있다(위의 책, p.107).

8 노철연, 2012, 『교육과정의 예술적 측면 : 아이즈너의 교육과정이론 일 고찰』, 『교육과정연구』 30(4), pp.33~34.

9 채미영·김경철, 2016, 『Eisner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목표 분석』, 『유아교육연구』 36(4), p.179.

10 장호수, 2014,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자료원, pp.12~14.



## 2) 문화재교육 관련 규정과 문화재교육 목적

문화재교육 목표 분석을 위해 이제까지 문화재교육의 기본이 된 문화재교육 관련 규정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정에는 우리 문화재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가 된 『문화재보호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교육 관련 규정은 제1조와 제2조 제2항이다. 제1조에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제2조 제2항에서 ‘문화재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1</sup>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sup>12</sup>

또 『문화재보호법』 제1조 2항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교육<sup>13</sup>

『문화재보호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민족문화 계승, 국민의 문화 향상, 민족 정체성 확립 등 문화재교육이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 애호의식 함양 등 문화재교육이 가치 그리고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 보호활동, 인류문화발전에 기여,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 등 문화재교육이 단순히 문화재에 대한 지식 습득이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의 변화까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인류문화의 발전, 지역문화 발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 등 문화재교육을 민족과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지역과 인류의 문제까지로 연결하고 있다. 즉 문화재교육이 지역 - 국가(민족) - 인류의 연결선 상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른 나라 문화재교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규정으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sup>14</sup>이 있다. 이 자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이 협약 당사자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그들은 동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킬 것을 약속한다.<sup>15</sup>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추론해 본다면 첫째는 자국민의 이

11 『문화재보호법』 제1조.

1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13 『문화재보호법』 제1조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4 유네스코, 197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5 유네스코, 197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VI. 교육계획 제27조.

해, 대중에게 주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다. 둘째는 문화재에 대한 존중심에서 보이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이다. 문화재에 대한 존중심은 앞서 『문화재보호법』 분석에서 살펴본 가치 습득, 가치 증진, 애호 의식 함양, 보호의식 함양 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문화재보호법』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나타나는 문화재교육 관련 내용들은 문화재교육의 목표보다는 문화재교육의 목적에 해당된다. 교육목적(educational goals)은 교육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표적을 말하며, 교육목표(objectives of education)는 의도적 교육 실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성과로 교육목적을 구체화시킨 항목<sup>16</sup>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내용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보다는 문화재교육의 궁극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문화재교육의 목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문화재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재교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 2.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 분석

현재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며, 그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화재교육의 목표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몇 가지의 자료에서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추출해볼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작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과 문화재청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문화재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국제적 기준과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적당한 자료로는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작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sup>17</sup>이 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은 ‘배우고 존중하며 행동하자’라는 부제가 붙은 교사들을 위한 세계유산교육 지침서다. 이 부제는 문화유산교육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습득, 가치 인식과 존중과 이에 따른 행동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자료에는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과 정체성’, ‘세계유산과 관광’, ‘세계유산과 환경’, ‘세계유산과 평화의 문화’ 등의 각 장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세계유산협약’부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식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도록 돕는다.

- 유산과 세계유산의 개념
- 세계유산이 직면한 위협
- 세계유산협약의 중요성(이하 생략)

#### 태도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장려한다.

- 현지 유산 보호에 참여한다.
- 세계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중시한다.
- 타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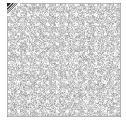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 현지 유산과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다.

1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pp.106~107.

17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한국어판.





- 유산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 유산보존에 기여한다.(이하 생략)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의 각 장별 목표는 부제에서 말한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 가치인식, 행동하기를 지식, 태도, 역량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화된 목표를 지식, 태도, 역량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각 주제에 따른 실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있는 것이다.

## 2) 문화재청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목적은 ‘문화재교육 확산, 문화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sup>18</sup>를 위함이라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1년 8월 3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시범운영)를 공고하였고, 2021년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1건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7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시범운영) 결과를 발표<sup>19</sup>하였다. 인증된 10개의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 인증심사를 위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양식 중 ‘프로그램 목표’ 부분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분석척도를 형식(Form)과 내용(Contents) 영역으로 정하고, 도달 정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평가한다.

형식 분석척도는 개념 이해(F-1)와 영역 다양성 정도(F-2)로 구분하였다. 개념 이해는 이해정도(F-1-1)와 진술수준(F-1-2)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해정

표 1 2021년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기관/단체명
제2021-001호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사)광주문화나루
제2021-002호	꼭 알아야 할 아동의 문화유산 교육	안동문화지킴이
제2021-003호	내고갈 내소고 나의 춤	(사)고창농악보존회
제2021-004호	모두의 문화재. 아차산	한강문화재연구원
제2021-005호	백제외교사신 체험프로그램	(주)백제에서놀자
제2021-006호	산청박물관에서 배우는 가야 고분과 토기	산청박물관
제2021-007호	오이도Go,Back,Jump!	시흥오이도박물관
제2021-008호	제주고산리 유적 불을 담다.『제고담』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제2021-009호	집에서 만나는 무사 신봉의 이야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제2021-010호	한류의 원천 한성백제	(사)문화살림

도(F-1-1)는 목표가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성과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이고, 진술수준(F-1-2)은 행동적 목표의 경우에는 도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표현 정도, 문제해결 목표의 경우에는 문제제시와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도성 허용의 형식을 담고 있는 정도, 표현 결과의 경우에는 교육의 과정이나 이후에 학습자의 표현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방성과 학습자 주도성 허용의 형식을 담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영역의 영역 다양성 정도(F-2)는 행동목표(F-2-1), 문제해결목표(F-2-2), 표현결과(F-2-3)로 구분하였다. 행동목표(F-2-1)는 인지적·정의적 영역과 또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식·이해·적용·분석, 종합·평가를, 정의적 영역에서는 수용·반응·가치화·조직화·인격화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또 문제해결목표(F-2-2)는 문제의 다양성과 예상되는 답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며, 표현 결과(F-2-3)는 예상되는 표현방식과 결과의 다양성 정도를 말한다.

내용 분석척도는 국가 요구(C-1)와 개인 필요

18 문화재청, 2020,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전컨설팅 운영 보고서』, p.16.

19 2021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최종 결과 발표 | 공지사항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C-2)로 구분하였다. 국가 요구는 전통적 목표(C-1-1)과 실용적 목표(C-1-2)로 다시 구분하였다. 전통적 목표(C-1-1)는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보이는 민족문화 계승, 국민의 문화 향상, 민족 정체성 확립 등을 말하며, 실용적 목표(C-1-2)는 문화재교육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의 발전 등을 말한다. 개인 필요는 공교육 보완(C-2-1)과 향유(C-2-2)를 분석적으로 정하였다. 공교육 보조는 문화재교육이 개인의 학교 교과교육이나 기타 학교활동을 보충하는 것을, 향유는 문화재교육을 통해 개인이 즐거움·만족감·성취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분석 과정과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의 프로그램만 제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만 제시한다.

〈001호 광산, 문화유산의 꽃이 피다〉

- 목적 및 필요성
- ~*(생략)*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문화유산을 익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화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목표

- 지역문화유산 재해석을 통한 문화유산 수업 모델 개발
- 자발적 문화재 인식의 기회 확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유산 교재, 유물 모형 관찰 및 조작활동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인식하고 몰입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하여 자발적인 문화재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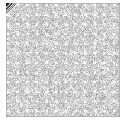
001호 프로그램의 형식을 분석해 보면 ‘자발적 문화재 인식의 기회 확대’,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는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문화유산 수업 모델 개발’은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념 이해도(F-1-1)는 중간 정도(중) 달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진술수준 중 행동목표 진술을 살펴보면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그다지 명시적이지 않다. 문제해결목표 진술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유산 교재, 유물 모형 관찰 및 조작활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보이며 표현결과 진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술수준(F-1-2)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중함을 알고’는 지식 영역에 해당되고,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등은 이해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소통할 수 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등은 태도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행동목표(F-2-1) 다양성은 비교적 풍부하게(상)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목표(F-2-2) 다양성이나 표현결과(F-2-3) 다양성은 거의 담겨있지 않다.(하)

001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 등 전통적 목적(C-1-1)에 해당되는(상) 내용은 보이나, 실용적 목적(C-1-2)이나 공교육 보완(C-2-1) 등은 보이지 않는다.(하) 그러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에서 ‘쉽고 즐겁게 익히고’,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문화재교육의 목표로 개인의 향유(C-2-2)를 설정하고 있다(상)는 것을 알 수 있다.

〈003호 내고깔 내소고 나의 춤〉

▶ 프로그램 목표

- 고창농악에 대한 이해 확장
- 농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초등학생들에게 고깔,



상모쓰기 체험, 고깔과 소고만들기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욕을 높인다.

- 영상 자료를 시청함으로써 고창농악과 관련한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한다.
- 고창의 문화와 멋이 담긴 고창농악, 자기표현 과정을 통한 문화유산의 지속과 발전
- 고창농악에 담긴 예술적 특성을 고깔과 소고를 통해서 드러낸다. 타지역소고와 비교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문화유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타 지역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소고만들기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표현방식을 이끌어 낸다.
- 고창농악에서 전승하는 정형화된 소고춤과 학생들의 비정형화된 일상의 동작을 소고춤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교과과정과 연계한 국악장단과 소고춤
- 소고춤에 나오는 장단을 교과과정에 나오는 장단과 연계하여 장구장단으로 익힌다.

003호 프로그램의 형식을 분석해 보면 개념 이해 정도(F-1-1)는 ‘고창 농악에 대한 이해 확장’, ‘우리 지역문화유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타 지역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나 ‘문화유산의 지속 발전’ 등에서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서 중간 정도(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수준(F-1-2)은 행동목표 진술에서 보면 ‘소고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장구장단을 익힌다.’ 등 명시적으로 잘 진술되어 있다. 문제해결목표 진술은 ‘고깔과 소고 만들기’, ‘소고춤을 만들 수 있다.’ 등에서 중간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현결과 진술은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중) 행동목표(F-2-1) 다양성은 ‘지역문화유산을 이해’는 이해 영역에 해당되고, ‘소고춤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종합력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히 달성(상)되고 있다고 보

인다. 문제해결목표 다양성(F-2-2)과 표현결과 다양성(F-2-3)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하)

003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통적 목적(C-1-1)은 ‘문화유산의 지속과 발전’, ‘지역문화유산의 이해’ 등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민족 문화 계승이나 민족 정체성 확립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지는 않아 중간 정도(중)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용적 목적(C-1-2)은 거의 찾을 수 없다.(하) 공교육 보완(C-2-1)은 ‘소고춤에 나오는 장단을 교과과정에 나오는 장단과 연계하여 장구장단을 익힌다.’ 등을 통해 상당히 달성(상)하고 있다고 보인다. 향유(C-2-2)에 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으나 ‘자기표현 과정을 통한’에서 어느 정도(중)의 달성될 수 있

표 2 목표의 형식(Form) 분석 결과

인증번호	개념 이해 (F-1)		영역 다양성 정도 (F-2)		
	이해 정도 (F-1-1)	진술 수준 (F-1-2)	행동 목표 (F-2-1)	문제해결 목표 (F-2-2)	표현 결과 (F-2-3)
001호	중	중	상	하	하
002호	하	하	하	하	하
003호	중	중	상	하	하
004호	하	하	하	하	하
005호	하	하	하	하	하
006호	중	중	중	중	중
007호	중	하	중	하	하
008호	중	중	중	중	하
009호	중	중	중	중	중
010호	하	하	하	하	하
평균점	1.60	1.50	1.80	1.30	1.20

표 3 목표의 내용(Contents) 분석 결과

인증번호	국가 요구(C-1)		개인 필요(C-2)	
	전통적 목적 (C-1-1)	실용적 목적 (C-1-2)	공교육 보완 (C-2-1)	향유 (C-2-2)
001호	상	하	하	상
002호	상	하	하	하
003호	중	하	상	중
004호	하	하	하	하
005호	하	하	하	하
006호	상	하	하	하
007호	상	상	하	하
008호	중	상	하	하
009호	상	하	상	하
010호	상	하	중	하
평균점	2.40	1.40	1.50	1.30



다고 보인다.

문화재청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점은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으로 환산해 본 것이다.

평균점을 살펴보면 개념 이해정도(F-1-1), 진술 수준(F-1-2)이 비교적 낮아 문화재교육 관계자들에게 교육목표의 개념이나 교육목표 진술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행동목표(F-2-1)의 다양성도 낮으나 더 큰 문제점은 문제해결 목표(F-2-2)의 다양성, 표현결과(F-2-3)의 다양성은 더욱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제해결목표나 표현결과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화재교육 목표에서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용면에서 전통적 목표(C-1-1)가 가장 높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문화재교육 목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향유(C-2-2) 부분이 가장 낮아 향유를 문화재교육 목표에서 새롭게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문화재보호법』,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자료는 일반적인 교육목표에 비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면이 많아 문화재교육의 목표보다는 목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과 문화재청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재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중 문화재청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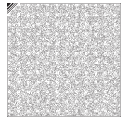
첫째, 문화재교육 관련자는 물론이고 문화재교육 담당자들이 교육목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교육목표는 교육을

통해 변화된 결과를 진술하는 것이다. 행동적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는 학습자 중심으로 흥미롭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문화재청 인증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 아니고, 명시적이지 않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 발휘의 가능성이 나타나도록 진술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교육목표가 실제 실천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문화재청 인증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행동목표로 명확하게 진술될 수 있거나, 문제해결목표나 다양한 표현결과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진술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목표가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적 영역, 정서적 영역, 태도적 영역 그리고 문제해결력과 표현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영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을 즐기고 누리는 ‘문제해결’이나 ‘향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대부분이 지식 중심이며 학습자 중심 특히 학습자의 향유나 역량 개발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교육목표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았다. 현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재교육의 목표인 민족문화 계승,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민족 정체성 확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교육목표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필요하다. 강선주는 ‘2020년대 인류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계에서 또 지역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문화재를 민족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괴리한다.<sup>20</sup>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문화재교육 목표 설정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이 희석<sup>21</sup>되는 가운데 이제까지 많은 문화재교육에서 제시한 민족문화 계승,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민족 정체성 확립 등의 교육목표는 분명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U.V.E.C. 문화재교육

#### 1. 문화재교육의 새 방향

앞에서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교육 관계자들의 교육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적 다양성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가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는 형식과 내용의 두 측면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형식면에서는 문화재교육이 교육의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존 교육목표의 형식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교육목표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면에서는 문화재교육이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교육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문화재 연구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문화재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두 가지 자료가 있다. 하나는 '국가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이다.

#### 1) 국가교육과정을 참조한 문화재교육

국가교육과정 중 문화재교육과 가장 근접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역사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역사’는 한국과 세계 각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생략) 파악하여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생략)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생략)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게 한다. (생략)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고 역사를 재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략)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근거와 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생략) 한국과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기른다.

‘역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생략) 주요 사건과 개념을 이해한다.
- 나. (생략) 연속성과 변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 다. (생략) 변화하였음을 이해하고, (생략) 발전해왔음을 파악한다.
- 라. (생략) 역사적 설명을 구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생략)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바. (생략) 민주와 평화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sup>22</sup>

역사과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교과목표 중 상위목표에 해당되는 ‘총괄목표’<sup>23</sup>가 있고, 그 하위목표에 해당되는 ‘세부목표’가 있다. 총괄목표는 ‘~파악하여, ~해결하고, ~제시하는 능력인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20 강선주, 2020, 「역사교육과 문화재교육, '민족'을 위한 연합에서 '민족의 탈각' 역사와 문화재의 구분으로」, 『역사교육연구』 37(173), pp.202~203.

21 위 논문, p.191.

22 교육부, 201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p.97.

23 본 연구에서는 ‘~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다.’를 ‘총괄목표’로, ‘역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하의 ‘가 ~ 바’의 내용을 ‘세부목표’라고 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교·분석·종합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인식하고, ~파악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며 ~해결하는 ~자세를 기른다.'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는 '~이해한다. ~파악한다. ~능력을 기른다. ~태도를 기른다. ~자세를 기른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세 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 파악, 탐구, 비교·분석·종합 등 학습자가 외부의 지식 즉 학습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인식, 능력 등 학습자가 그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존중, 제시, 태도, 자세 등 학습자가 내면화된 내용을 여러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 2)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을 참조한 문화재교육

2007년에 문화재청에서 간행한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은 내용면에서 문화재교육 목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understand it*)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value it*),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care it*),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을 향유해(*enjoy it*)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생략)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며,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감으로써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교육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 교육은 (생략)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원으로서의 총체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문화유산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4</sup>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의 내용을 앞의 교육과정

에서 추론한 지식습득-내면화-행동화의 단계에 적용해서 분석하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는 지식습득 단계이고 '가치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형성시켜'는 내면화 단계이다. 그리고 '보호하고, 향유한다.'는 행동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치를 보호하고, 향유한다.', '문화를 창조'는 다른 교육과는 다른 문화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시민으로 양성, 문화를 창조'는 특수하면서도 최종적인 문화재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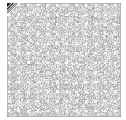
## 3) 문화재교육 목표의 새 방향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형식을,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에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문화재교육의 새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갖춘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고 실천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문화재교육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교육목표의 개념, 의미,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도 목표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실천 가능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교육 목표가 학습자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교육이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면서도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문화재교육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면서도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



며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도 발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재교육 목표가 특수한 조건에서부터 일반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변용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 2.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

### 1) U.V.E.C. 문화재교육의 총괄목표

문화재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교육의 첫 단계는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는 자료의 의미를 파악·적용·분석·관계짓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이해력이란 지식을 그대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의미를 번역·해석하고 외연(外延)에 의해서 추리해내는 능력이다.<sup>25</sup> 지금까지의 문화재교육은 대부분이 지식을 습득하고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지식의 습득과 재생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제 문화재교육 목표는 문화재 지식을 습득하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재교육의 총괄목표는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한다.’로 설정한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 방향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문화재는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학습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치 인식 후에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자체가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학습자

는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하며 가치를 인식한 이후에는 애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그에 따라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화재교육에서 가치의 문제는 ‘지식습득’, ‘내면화’, ‘행동화’의 단계에 모두 관련된다. 문화재교육에서는 이 과정을 목표로 진술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화재교육의 두 번째 총괄목표는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한다.’로 설정한다.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교육에서도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둔다. 하나는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 개발이다. 문화재교육은 그 내용이 되는 문화재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상징성 등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어 다양한 역량<sup>26</sup> 개발에 매우 적합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이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중심 교육’이어야 한다. 학습자중심 교육의 기본 바탕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다. 즉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갖고 학습 과정을 누리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즐기면서 하는 학습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은 없다. 문화재교육은 무형, 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것을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다른 교과보다 학습자 중심 교육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문화재교육에 대한 개인적 요구의 많은 부분이 문화재를 즐기는, 즉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7</sup>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재교육은 이런 향유 부분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고’라고 이 점을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를 향유하는 것은

2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p.530.

26 역량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실천적 수행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합을 의미한다(성태제 외 12인, 2021,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p.365).

27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조사(5점 만점)에서 인지도 및 관심도(2.48)보다 문화유산 관람은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함(3.68), 문화유산을 보거나 느끼면 기분이 좋아짐(3.58) 등 향유와 관련된 항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문화재청·현대리서치연구소, 2018,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p.14).



지식습득과 내면화에 이어 교육이 거둘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교육의 세 번째 총괄목표는 ‘문화재를 향유(Enjoy)한다.’로 설정한다.

문화재란 문화의 한 부분으로, 문화를 가장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을 보면 ‘문화시민으로 양성’, ‘문화를 창조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즉 문화재교육에서 문화시민 양성이나 문화창조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행정」에서 제시한 6대 비전 중 ‘03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만나는 문화유산’의 ‘최신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04 세계 속에서 공존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우리 유산’의 ‘우리 유산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화 및 국가의 문화강국적인 이미지 형성’등의 항목<sup>28</sup>은 문화재교육 목표로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교육의 네 번째 총괄목표는 ‘문화를 창조(Create)한다.’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한다,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한다, 문화재를 향유(Enjoy)한다. 문화를 창조(Create) 한다.’라는 문화재교육의 총괄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문화재교육을 각 목표의 영어 앞 첫 글자를 따서 U.V.E.C. 문화재교육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 2) U.V.E.C. 문화재교육의 세부목표

위에서 설정한 문화재교육의 총괄목표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목표는 교육목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행동목표, 문제해결목표, 표현결과의 형식으로 제시해보려 한다.

‘문화재를 이해한다.’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의 세부목표로는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 문화재 이해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는 ‘문화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문화재를 비교할 수 있다’등 명시적 행위동사로 진술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목표로는 문화재 이해를 위한 문제제시 형식으로 진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는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목표는 문제해결 행위가 포함되며 행동목표보다는 다소 개방적으로 진술된다. 표현결과는 문화재 이해를 위한 표현과정과 결과 형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한 문화재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발표해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 표현결과는 활동에 대한 제안 형식이며 문제해결목표보다 더 개방적으로 진술된다.<sup>29</sup>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한다.’라는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로는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된 이유를 세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를, 문제해결목표로는 ‘훼손된 문화재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보자.’를 설정할 수 있다. 또 표현결과로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해보자.’등을 설정할 수 있다.

‘문화재를 향유한다.’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로는 ‘문화재를 감상한 후 문화재의 아름다운 점을 세 가지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를, 문제해결목표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재의 홍보자료를 제작해보자’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표현결과로는 ‘문화재 답사 후 재미있었던 과정을 SNS에 탑재한다.’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화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창조는 학습자의 창의성이 포함되는 표현활동, 제작활동 등에서부터 문화재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국가

28 문화재청, 20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 행정」, p.90.

29 채미영 · 김경철, 2016, 「Eisner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목표 분석」, 『유아교육연구』 36(4), p.185.



적, 세계적 의미의 창조성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를 창조한다’라는 총괄목표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로는 ‘문화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에코백의 무늬를 디자인할 수 있다.’를, 문제해결목표로는 ‘문화재 보호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소통 방법을 찾아보자.’를 설정할 수 있고 표현결과로는 ‘문화재를 활용한 마을 축제를 구성해 본다.’를 설정해 볼 수 있다.

### 3) U.V.E.C. 문화재교육의 실천목표

위에서 제시한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인 특정 문화재에 맞게 변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정 문화재에 맞게 변용되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교육 목표를 ‘실천목표’라 칭한다.

도산서원이라는 교육내용을 주제로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때 문화재교육의 총괄목표, 세부목표,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총괄목표는 ‘도산서원을 이해한다.’, ‘도산서원의 가치를 인식한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한다.’, ‘도산서원을 바탕으로 새 문화를 창조한다.’이다. 그리고 ‘도산서원을 이해한다.’라는 총괄목표의 하위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는 ‘도산서원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공부하던 서원으로 퇴계 이황의 업적을 말할 수 있다.’를 설정할 수 있다. 또 문제해결목표는 ‘도산서원 해설사가 되어보자.’로, 표현결과는 ‘도산서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발표해보자.’로 설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가치를 인식한다.’라는 총괄목표 하위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는 ‘도산서원의 가치를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문제해결목표는 ‘도산서원의 훼손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보자.’로, 표현결과는 ‘도산서원 지킴이 활동을 해보자.’로 설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한다.’라는 총괄목표 하위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는 ‘도산서원의 아름다운

점을 세 가지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문제해결목표는 ‘도산서원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도산서원 홍보자료를 제작해보자.’로, 표현결과는 ‘도산서원 답사 후 재미있었던 과정을 SNS에 탑재한다.’로 설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을 바탕으로 새 문화를 창조한다.’라는 총괄목표 하위의 세부목표 중 행동목표는 ‘도산서원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다.’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문제해결목표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소통 방법을 찾아보자.’로, 표현결과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구조와 모습을 구성해 본다.’로 설정할 수 있다.

## IV. 결론

그동안 문화재교육은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재교육의 질적 성장은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 문화재교육은 목표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문화재교육은 그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지금의 문화재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문화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교육적으로 유의미 하면서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은 문화재교육 관련자들이 교육목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교육 목표가 교육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U.V.E.C. 문화재교육’이란 새로운 문화재교육을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하고, 문화재를 향유(Enjoy)하고,

문화를 창조(Create)하는 교육이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변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총괄목표, 세부목표, 실천목표라는 단계별 목표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 문화재교육 목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육으로서의 일반성과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동목표의 영역 다양성과 진술 명확성, 문제해결 목표와 표현결과의 학습자 주도성과 개방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교수자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학습자에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이제까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문화재교육의 목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이후에 U.V.E.C. 문화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재교육 전반이 변화될 것이며 문화재교육은 새로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주, 2020, 「역사교육과 문화재교육, '민족'을 위한 연합에서 '민족의 탈각' 역사와 문화재의 구분으로」, 『역사교육연구』 37(173), pp.202~203.
- 김은정, 2018, 「아이즈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나타난 질적, 예술적 특성」, 『교육논총』 55(2), pp.1~2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교육부, 201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p.97.
- 김용구, 2018, 「문화유산교육의 전개과정과 지역문화유산교육의 부상」, 『문화재』 55(2), pp.154~169.
- 노경민, 2021, 「국제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pp.1~28.
- 노철연, 2012, 「교육과정의 예술적 측면: 아이즈너의 교육과정이론 일 고찰」, 『교육과정연구』 30(4), pp.33~34.
- 『문화재보호법』, 제1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2항.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
-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한국어판.
- 문화재청·현대리서치연구소, 2018,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p.14.
- 문화재청, 2020,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전컨설팅 운영 보고서』, p.16.
- 문화재청·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21,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pp.205~208.
- 문화재청, 20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 행정』, p.90.
- 문화재청, 2021,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재청, 2021, 『문화재교육 강사를 위한 교수법 가이드』.
-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최종 결과 발표 | 공지사항 상세 -문화재청([cha.go.kr](http://cha.go.kr))(접속일: 2021.12.0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 성태제 외 12인, 2021,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p.365.
- 안대현·홍후조, 2021,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 방안 연구」, 『문화재』 54(3), pp.150~167.
- 유네스코, 197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장호수, 2014,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자료원, pp.12~14.
- 채미영·김경철, 2016, 「Eisner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목표 분석」, 『유아교육연구』 36(4).
- 한건수·감다원, 2021, 「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제언」, 『문화재』 54(4), pp.134~153.
- 한국문화재단, 2016, 「2016년 문화유산 공교육 활성화 방안」, p.29.



# A Study on the Objective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for establish of the U.V.E.C.(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Cultural Property Education

**PARK Sanghye** Researcher, Institute for History Textbooks Research, Dongguk University  
shpark59@hanmail.net

## Abstract

To date, cultural property education has seen rapid quantitative growth due to national and personal needs. However, qualitative growth is lacking. The objective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and therefore, even its identity is not clear. The most pressing issue at present in cultural property education is to first se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current cultural property education, identify the problems, and set new objectives to meet significant national and personal needs in terms of education.

The problems with the objectives of current cultural property education are that the persons interested in the education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education objectives clearly and that the objectives do not contain much actual content of the education. Also, the objectives of the education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ynamic competencies and interests of the learners and do not satisfy the changes of the times. To solve these problems, new cultural property education, called 'U.V.E.C.,' was offered. U.V.E.C. education is aimed at understanding cultural properties, recognizing their value, and enjoying them, and at creating culture.

The objectives of U.V.E.C. cultural property education were set such that they can be modified flexibly in a learner-centric way with clear and practical format and contents. Based on this direction, stepwise objectives were set including overall objectives, detailed objectives, and practice objectives, and objective cases of each step were proposed. Considering the generality of the education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properties, the U.V.E.C. education objectives took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behavioral objectives, clearness in statements, the objectives of problem solving, the initiative of learners and openness for expression outcomes.

The U.V.E.C. objectives are clear and specific so that teachers can enhance their pedagogical efficiency and learners are able to develop interesting and diversified competenc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U.V.E.C. objectives will significantly affect objective setting for education on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widely. Further systemic and specific studies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U.V.E.C. education would help to change the overall education on cultural properties and position the field as a new academic area.

**Keywords** U.V.E.C. Cultural Property Education, 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Received 2022. 6. 29. | Revised 2022. 7. 22. | Accepted 2022. 11. 3.

